

주간예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08
Aug. 2023
Vol.11 No.08

통 권 108호

- 세마장학금 수여식
- 제28차 주안예만남
- 멕시코 선교 간증
- EM / 코람데오 / 교육부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이른 새벽 농장일을 나가는 원주민 노동자들에게 커피와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팀

‘척박한 땅, 고단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 멕시코 단기선교

지난 8월 6일(주일) 2부예배시간에 멕시코 단기선교 파송식을 마치고 오전 11시 30분, 60여명의 선교팀은 3박 4일 일정으로 대형버스 1대와 4대의 밴에 나누어 타고 멕시코 산비센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11시 30분 교회를 출발하여 샌디에고를 지나 국경을 통과하고 티화나-엔세나다를 거쳐 산비센테 선교센터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9시 30분, 박민재 목사의 인도로 도착 감사예배를 드리고 현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 뒤 각자 취침에 들었습니다.

둘째날(8월 7일)은 새벽 전도를 나가기 위해 3시 30분에 기상, 4시에 출발하여 농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출발하는 장소인 camalu 지역에 3개 조로 나아가 사역을 하였습니다. 컵라면과 커피 그리고 초코파이 등을 전하며 예수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농장에서 힘겹게 일을 해야 겨우 10달러를 버는, 척박한 환경. 농장에 함께 일을 하러 가는 부부를 만났는데, 예수를 소개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한 뒤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해 주었습니다.

아침식사를 마친 뒤에는 재활센터에 방문, 미용과 의료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핫도그와 음료를 제공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건축팀은 예배당 옆 주방의 지붕이 내려 앉은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태풍이 불어도 안전할 정도로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또 둘째날에는 Storage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4개조로 나눈 페인트 팀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보수가 필요한 벽과 지붕, 문과 처마 그리고 기둥 등 여러 곳을 페인트로 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2면에 계속>

〈관계기사: 6, 10, 11면〉 | 이광영 기자 |



키가 자라듯이 하나님 아는 지식도 무럭무럭...

■ 졸업예배 & 달란트 시장

8월 13일 주일은 졸업예배로 드러졌다. 유년부인 IC NOW 는 소년부인 IC POWER 로, 소년부였던 IC POWER 는 중등부 ICY 로, 각각 11명의 아이들이 첫 학년으로 진급하게 되었다.

김민재 전도사는 그동안 IC KIDZ 에서 배운 다양한 성경 속 인물들과 이야기들을 ICY에 올라가서도 지금까지

쌓아온 성경 속 지식이 밑거름이 되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졸업예배 끝에는 아이들 모두가 키가 자라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함께 성장해 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졸업생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졸업예배 후에는 지난 3달간 성실한 예배참석과 성경구절을 잘 외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달란트' 를 모아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 잔치' 가 열렸고 아이들은 신나고 들뜬 마음으로 스낵류, 문구류, 미니카메라, 장난감 등 다양한 선물들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만화날 천국에서는 더 많은 달란트가 쌓여져 있길 기대하며~

| 이성은 기자 |

■ 단기선교 <1면서 계속>

전도팀은 4개팀으로 나누어 각각 가정을 방문하여 작은 선물과 함께 전도를 하고 다음날 있을 VBS에 꼭 참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3일차에도 새벽 4시 기상, 4시 30분에 colonet 지역으로 새벽전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식사를 마친 후, 드디어 VBS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의료팀, 건축팀, 주방팀, 미용팀, nail art팀, face painting팀, 사진팀, 풍선 art팀, 놀이기구 팀, 그리고 솜사탕과 ice 음료 등 모두가 총출동 축제를 하였습니다.

의료팀은 한의사인 정명안 집사와 7명의 팀원이 2일 동안 침과 뜸을 가지고 120여명의 환자를 돌보았는데 특히 허리와 목 환자가 많았습니다. 이는 쉬어야 빨리 회복 되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안타깝고 또 4~5차례 치료를 해 주면 더욱 좋올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용팀도 유제니 권사의 솜씨로 110명이 넘는 사람들의 머리를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 주었는데 현지 Rudy 목사님이 미용의자를 준비해 주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방팀의 김영희 권사는 배고픔과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저들을 늘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200여 가족의 사진을 찍어 즉석에서 사진을 프린트 해서 주었고, 많은 아이들의 손톱과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풍선으로 여러 모양을 만들어 주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선교의 핵심은 역시 예배와 찬양. 우리 찬양팀이 울동과 함께 영어로 찬양을 할 때는 가사가 익숙하지 않아도 성령이 저들을 깨우고 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스페인어로 찬양을 드리자 저들이 함께 따라 부르고 일어나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감사의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Rudy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마치자 또 한번의 식사를 저들에게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학용품과 의류, 음식 등 여러가지 선물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념으로 한 장의 단체사진을 남기고 LA를 향해 돌아오는 10시간의 여정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세마장학회 성경 암송 장학금 45명 수여

■ 2023 주안에장학회

지난 8월 25일 밸리채플 금요일성예배 시간에 제5회 세마장학금수여식이 열렸다.

주안에교회 장학금은 종전 칼리지 재학생과 고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세이와 교회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선발하던 방식에서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성경 암송 실적에 따라 지급해

오고 있다.

암송 3년차를 맞은 금년에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재학생, 선교사 자녀 등 45명이 참가해 7개월간 미리 주어진 성경 7개 장을 암송했다. 이번에 암송한 성경 말씀은 시편46편, 시편119:97-106, 갈6:1-10, 엡4장, 벧전1장, 요한일서1장, 롬12장(보너스 크레딧)으로 전체 다 암송한 학생이 17명이나 되었다. 크리스 이 목사님의 사회로 열린 이

날 시상식에서는 많은 성도들과 학부 모들이 참석해 이들을 축하하고 축복했다. 특히 매튜 마군(4학년)군이 로마서 12장 전체를 유창하게 암송, 박수를 받았다.

금년 제5회 주안에장학회에도 29명의 위원들이 3만달러가 넘는 장학금을 기부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차세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 조용대 기자 |

문화와 언어의 간격 성령 안에서 하나로

■ Together Worship (EM · KM 청년부 연합예배)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4)

이민교회의 하나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한 공동체안에서의 분리. 한 교회 안에 두 공동체가 생기고 그 두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격. 주안에 교회에 있는 우리 코람데오와 EM 이 두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격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뜻대 삼아 진정한 연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코람데오와 EM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연합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준비하며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언어로 찬양함으로써 우리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 이심을 느끼며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또 나눔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



눔으로써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게되어 서로를 더욱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뜻대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더욱 더 힘써 나아가는 코람데오와 EM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9월 2일~4일까지 진행되는 연합 수련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영민 성도 |



‘아픔 · 방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

주안에신문 편집국에서 주안예교회 교인들의 사업체를 탐방하고 소개하는 기획 취재를 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로 San Diego에 소재한 신욱, 장 웬디 집사 부부가 운영하는 'MOMENT SUSHI' 를 지난 8월 22일에 본 기자 부부와 이 에스더 권사가 방문하였다. 신욱 집사 가정에 대하여 최혁 담임목사님이 설교시간에 몇 번 예화로 소개하여서 약간의 사전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날 주로 신욱 집사와 만남을 통해 새로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교인들과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며 이 가정과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희망 한다.

LA로부터 3시간 걸려 도착한 식당은 큰 뒷길 뒤쪽 파킹랏에 위치한 소매상점 10여개가 있는 소형 상가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 주변에 10여 층짜리 건물 2개가 있고 여타 사람들이 몰릴만한 시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4명 스시맨과 4-5명의 웨이트리스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준비하는 모습과 식당 분위기가 음식 맛이 좋아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인상이 금방 감지되었다.

곧바로 신욱 집사와 면담할 때 설명이 식당 규모에 비해 손님들이 많고 꾸준히 단골손님들이 찾고 있다고 말하였다. 식당 위치가 뛰어나 것도 아니고 충분한 창업자금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며 매상이 제일 많은 주말날 문을 닫는데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식당이 잘 되고 번창하는 이유가 신집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음을 알게 되었다.

*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시다.

유소년 시절 순탄치 않은 가정 사정으로 인해 어머니와 신집사 그리고 여동생 하나와 살게 될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기거하고 신집사와 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신집사는 외삼촌택, 동생은 이모댁에 얹혀사는 어려움에 처했다. 신집사의 가정은 원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인지라 어머니와 어린 남매는 다시 가족을 합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일 눈물로 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은 하나가 안됐고 청년시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신집사가 2019년부터 지금의 아내 장 웬디 집사와 교제를 시작할 때 웬디의 전제 조건인 “하나님을 믿고 또 주안예교회에 출석해야 한다” 는 제안을 받아들여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 어린 시절 눈물로 부르짖던 신집사의 기도를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돌아온 신집사를 지금 축복 하시는 줄로 생각 된다.

* 둘째는 신앙 좋고 유능한 배우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방황하던 청년을 교회로 인도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매주 왕복 6~7시간이나 걸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기뻐하도록 변화 시킨 아내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더욱 식당 운영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특별히 재정에 관한 것은 완전히 아내에게 일임 할 만큼 유능하고 신빙성 있는 배우자로 인해 사업이 융성하는 것이 두

■ 안수집사회 신입회원 환영모임

지난 8월13일 주일 예배후 친교실 에서는 신입 안수집사 환영회가 있었다. 박민재 목사님의 시작기도에 이어 안수집사 회장인 김재동 집사가 사회를 보았다. 부부동반한 안수집사들은 선배집사님들께 자신을 소개하며 믿음의 가르침을 부탁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총무인 이원근 집사는 안수집사로서의 본분과 사명등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줄것을 부탁했다. 이번 환영회를 위하여 안수집사회는 갈비 100파운드나 준비해 주변에 있던 EM 예배자들, 각 부서 봉사자들 까지 갈비를 대접받는 바람에 모두 즐겁고 신나는 주일 오후가 되었다고 한다. | 임용자 기자 |



■ 믿음과 삶 (신옥 집사)

번째 이유인 것 같다.

* 셋째는 신집사 자신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대인 관계이다.

20년 전 미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영어를 배우러 이곳에 왔다. 그 후 우연히 스시 식당에 취업하게 되었고 그 식당에서 15년간 오직 스시 만드는 일과 손님 관리 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다하여 배우고 노력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시 먹고 싶어 하는 스시의 장인이 되었다. 겹쳐서 그 당시 손님들과 맺은 끈끈한 대인관계가 거리가 멀고 위치가 외진데도 늘 찾아주는 많은 손님들로 인해 식당이 번창하는 이유가 된 것 같다.

다음으로 신집사 내외가 영적 전쟁을 겪고 있다며 이길 수 있도록 기도도 도와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그 중 한 가지는 주안예교회 교인도 아니었던 때에 결혼 주례를 맡아 주시고 그후 많은 영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최혁 목사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San Diego 나 더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많지만 주안예교회로 매주 출석하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긴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교회 출석을 했을 때 처음엔 며칠간 하나님께 죄스럽고 마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

래에는 결석을 했을 때 죄송한 마음보단,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안예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노력하는 마음과 육신적인 편안함을 갈망하는 모습 사이에 영적인 싸움에 빠지게 되었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도 도와주실 것을 부탁 하였다.

| 나형철 기자 |



‘그의 삶이 들어있는 스시맛’

남가주에 태어난 8월의 폭우가 내린 이틀 후에 태평양을 바라보며 달리는 시간은 청결한 기쁨이었다. 바다는 푸르고 수목은 생명력으로 힘차게 펼쳐 있었다. 5번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오른쪽은 라호야, 왼쪽은 805로 바뀌면서 오피스 빌딩들이 들어선 곳에서 내려서 신옥 집사님의 사업체 (Moment Sushi) 가 있는 단지로 들어섰다.

새벽부터 나와 점심 식사를 준비해 놓고 집사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산뜻한 디자인의 식당과 깔끔하고 정리된 좋은 향기로 가득 찬 화장실, 밖에 놓여진 파라솔 아래 식탁들, 주인의 섬세함이 돋보였다.

시계가 6시 33분을 가리키고 있는 상호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결혼식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6:33 을 상호로 썼단다. 시계바늘은 양쪽이 깎여져 있어서 한쪽은 음식을 덜어다 놓고, 한쪽은 먹는 젓가락을 시계바늘로 쓴 상호가 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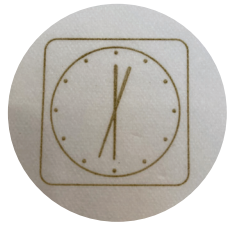
들어오면서 크지 않은 식당에 종업원이 많다고 느꼈던 것을 납득케 하는 점심 손님들이 몰려든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손님을 정중히 모시는 종업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훈련된 멋진 서비스를 제공해서 손님들은 우리가 대접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는 고급 식당이었다.

우리 일행은 당연히 밥값을 낼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오는 음식 하나하나에 감탄사를 발하면서 먹기 시작했다. 보기에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다고 아름답지만 잘 숙성된 생선회와 스시, 마구로와 연어의 변형, 새순 샐러드, 손수 만든 후식까지 감탄사로 시작한 식사가 감탄사로 끝나는 디저트까지 행복한 시간이었다.

오랜 인고의 삶을 통해 만들어 내는 맛이였을까? 깊이 있는 맛과 멋, 개업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뼈대한 자본으로 식기도 넉넉히 구하지 못한 채 시작했을 때 담임목사님께서 주고 가신 봉투를 열어 그릇을 채웠던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은 밥값을 치루시고 가셨다고 못내 아쉬워한다.

주의 종의 축복을 있는 대로 다 받아 어서 교회 부근에 와서 개업하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떠났다.

| 이예스터 기자 |



■ 권사회 신입회원 환영모임

8월 26일 새벽기도 후에 제3권사 신입권사 환영회가 있었다. 35여명이 모인 자리를 위해, 제3권사회와 회장되시는 김옥희 권사님의 주최로 건강을 생각한 양배추 샌드위치와 9가지 과일과 요거트, 그외 간식들을 준비해 주셨다. 이예스터 권사님은 멋지게 테이블 장식을 해주시고 선물로 난꽃도 준비해 주셨다. 함께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고, 그리고 손잡고 한 원을 그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안예교회에 필요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교회를 돌보는 손과 발이 되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류명수 기자 |



■ Mission Trip Reflection



Humbling Mo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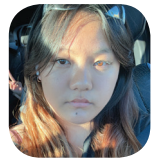
My optimistic expectations for an easy mission trip to Mexico were far from reality. Despite hearing about the challenges, I thought serving in Mexico would be simple. However, the stench upon crossing the border, extreme heat, and uncomfortable sleeping arrangements were initial shocks. We served food, coffee, and shared Christianity basics to locals in a crowded and dusty area. The unsanitary conditions and communication barriers were humbling. We also painted houses and did VBS at a packed church, forming connections with native kids. After serving in VBS, letting the kids play with the bubbles, and jump in the jumbo house, we finished the day off by giving everyone gifts such as notebooks, caps, slippers, toys, and other accessories I don't remember. When our group eventually made it back to America, I looked back and overall, the sacrifices that had to be made in order for God's grace to be reached upon those people who would have a hard time finding Jesus was completely worth all my efforts and time. I was so thankful I got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is and serve God!



Collin Yi

Thank You, God

My first time going to the Mexico mission trip with ICCC was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As I got older and matured, I wanted to go once more to help people in need through God. Of course, it wasn't easy, we had to get up at 3 AM everyday there to go give out cup ramen, choco pie, and coffee to people wh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to go to work so they can provide for their family. On the first day at Ensenada, we had to paint houses for families in groups. We worked for about 3-4 hours before taking a bus to multiple neighborhoods to invite them to VBS the next day. We got ready for VBS. There were many stations including snow cones, cotton candy, face painting, nail polish, etc. We set up chairs then soon, people started coming in. After about an hour, the whole church was packed, there weren't enough chairs to seat everyone, and the whole room was crowded. It was honestly my first time seeing something like this, I was touched seeing how many people were praising God all in one room. We gave out things like notebooks, socks, shoes, etc. to everyone. As the mission was coming to an end, I think God opened my eyes to see that I was fortunate to have a comfortable lifestyle.



Lindsay Song

Reflection on My Mission Trip

My recent Mexico mission trip with the church has been a transformative experience that has significantly deepened my belief in God. The trip gave me a unique opportunity to witness the power of faith in action and develop a stronger sense of purpose in Christ. Upon our arrival, I noticed a struggling community. Despite differences in language and customs, the core values of Christianity transcended cultural boundaries. Working alongside fellow church members fostered a sense of camaraderie. Sharing our experiences and reflections further bonded us on this mission, strengthening our very commitment to Christ. I found time to pray, reflect, and connect with God on a more profound level. This connection served as a foundation for the growth of my faith and newfound dedication to God. My Mexico mission trip was a transformative experience that significantly enriched my faith. Reflecting on the lessons learned during this mission trip, I am reminded of the profound connection between religion, service, and the transformative power of God's sacrifice.



Ethan Cho

■ Joint Beach Outing

*"EM and Coram Deo at the Beach"*

Amidst the grey sky, and quiet, lapping waves of Laguna Del Rey, our EM and Coram Deo communities experienced an unforgettable weekend of joint fellowship earlier this month. For few, the day started as early as 6:00AM, where tranquil waters provided the backdrop for a fishing trip. The fishing trip was not just about hooking fish, but also about casting aside worries and connecting with fellow believers. As many of us waited patiently for a bite, laughter and joy intertwined with the rhythmic sounds of casting lines into the water. Amidst friendly competitions and stories shared, conversations shifted from

everyday matters to deeper discussions about faith, purpose, and the divine's presence in their lives.

As the sun gently rose, casting a warm glow across the horizon, members of EM and Coram Deo gathered in excited anticipation. The ever-so salty breeze provided the perfect atmosphere for reflection and meditation. Seated on the sandy shores, EM and Coram Deo members played games such as beach soccer, conversed with one another over a slice of pizza, and allowed the symphony of nature to inspire thoughts of gratitude, awe, and connection with our Lord and Savior.

As they gazed out across the vast expanse of water, I'm sure hearts were lifted, and spirits were nourished by the joy that fellowship brings. The fishing trip and beach outing at Laguna Del Rey encourages our communities at ICCC to collaborate more, transcending boundaries and bringing people together in profound ways.

EM and Coram Deo members embarked on a journey that extended beyond fish caught or games played; it was a journey of shared spirituality, connection with nature, and the forging of lasting friendships.

Minhyuk Chang

글·문화·바른 정체성 심어준다

■ 한글학교 개강

올해로 설립 6년째를 맞이한 주안에한글학교가 오는 8월 20일 가을학기를 시작한다.

주안에한글학교는 단순히 한국의 글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바른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고루 담아 아이들의 마음과 머리 속에 깊이 기억되도록 매주 다양한 문화체험과 특별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 학생모두 감사 노트 쓰기, 뒷반은 한글버전 시편 외우기 등 믿음의 토양도 쌓아가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고있다.

앞으로도 주안에한글학교를 사랑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간: 8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등록비: \$150
둘째 \$140 셋째 &130 *등록 장소: 조이름 앞 데스크 *문의: 민에스터 전도사(213-270-4641) 장정보 권사(818-631-4755)
| 이현영 기자 |



■ 주안에만남 #28



말씀의 은혜... 회복과 치유의 기쁨 가득히

지난 8월 20일에 제28차 주안에만남이 있었다.

새가족을 맞이하는 새가족국의 김진석 국장은 매번 최선을 다해 변함없이 섬기는 모습이 감동을 넘어서는 감사의 마음이다.

주일예배를 드린 후 친교실에서는 성재영 전도사의 찬양을 시작으로 박찬경 전도사의 명품 색소폰 연주와 함께 맛있는 스테이크로 대접 받았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의 식사를 끝마친후 각자의 소개가 시작 되었다.

정경숙 성도는 시미밸리에 살면서도 주안에교회를 들어본적이 없이 살다가 포터랜치로 이사를 오면서 8살 딸이 큰 교회에서 성장하기를 위해 지난 부활절 날 처음 방문 했다고 한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에 갈까 말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일날이 기다려 진다고하며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 그전에 내가 믿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처음 주안에교회에 나와 첫설교 듣고 당일등록을 결정 했던 이유가 해결된 것이다.

백우섭 안수집사는 34년전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세군데 교회를 섬겼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신앙을 잊고 살았다고 한다. 아버님이 장로로 소천하셨고 두 형제가 목사임에도 신앙이 게을러지는 것은 잠깐 이라고 고백하였다.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싶어 형님같은 지인께 상담을 했더니 최혁 목사님의 CD 를 받아 듣게 되었다. 내 인생의 꼬인 두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처음 주안에교회에 나오던 날 이층에서 평평 울면서 내자신에게 놀라 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주안에교회가 너무 좋아 남은 인생 마지막 마무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 한다고 하였다.

유태환 권사는 5년전 남편 장로님이 소천 하신 후 팬데믹 때 우연히 들러본 주안에교회에서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구나 했지만 남편과 함께 다니던 교회를 차마 떠날 수가 없었는데 어느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유한 마음을 주셔서 등록하게 되었다. 최혁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를 새로 세우신 경험이 되어 너무 좋았고 오늘 새신자 주안에만남은 생애 최고의 신앙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

조운원, 강은영 집사는 최목사님을 처음 알게된 동기가 회안하다고 한다. 리

시다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식당을 방문 했다고 한다. 모든 목사님들은 당연히 대접을 받는것으로 알고 대접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유독 최혁 목사님만은 번번이 대접을 하시는 모습에 놀랐다고 한다.

교회를 찾다가 주안에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최목사님이 계시는 것에 놀래고 기억해 주시는 것에 놀라웠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났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비지니스도 다 처분했다고 하며 주안에만남 시간에 우시면서 간증하는 모습에 다 같이 은혜를 받았다.

각자 소개가 끝난 후 최혁 담임목사님은 교회비전 및 목회철학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로서의 증명이 가능한 교회, 예수님이 추구한 교회의 모습은 주님이 주인된 교회이다.

목회자의 임무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는 말씀에 모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동의하였다.

새가족들께 권면의 말씀으로는 이땅에서는 이롭없이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상을 받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하였다.

| 임용자 기자 |

■ 새가족 글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교회 파김장에 들어서는 순간 부터 주차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고 성전에 들어갈 땐 새가족부에서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안에만남은 즐거운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은 너무도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가장 감사한건 예배입니다. 미적지근 하 기만했던 내 신앙생활에 목사님의 말씀은 단비와 같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신실하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인도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신루비 집사 |

NEWSLETTER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터,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 양영, 윤석중, 박민, Paul Yang (사진) / 편집디자인: 김운영

■ 선교지에서 온 편지

동유럽 사역 마치고 중남미로

주안예교회 창립10주년 선교세미나에 초청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주안예교회의 배려로 6박 7일간 남가주를 방문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 가시는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이제 동유럽 루마니아의 동북에 있는 작은 도시에 와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조지아 공화국에서 현지인 주도의 '선교 개척' 사역을 하게 됩니다. 루마니아의 동북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와 접경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하네요. 변화를 싫어하고 선교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고...

현지 여기 교단 지도자들과 숙소에서 4시간 넘게 대화 하면서 이분들의 요청으로 내년 초에 청년 선교대회를 열고, 내년 여름에 단기 선교팀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완고하고 보수적인 이 땅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축복이 되길 소망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곳 라디오 방송국의 요청으로 40 분 분량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주제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작은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몰도바에서 오래 사역하신 분이 입맛에 맞는 야채 소고기 수프와 Calzone 같은 피자를 점심 식사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9월 초에는 브라질 현지 선교단체의 컨퍼런스와 하



순의 엘살바도르 선교사 훈련원 강의를 위해 중남미로 가게 됩니다.

기도와 사랑의 동역에 감사드리며 내내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앤드류김
순희 선교사

아이들의 눈물, 나의 아픔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일기. 저녁 성경읽기반(교리 문답)에 파앵온이 처음 참석했다. 처음이라 읽을 때 많이 떨리나보다.

읽을때 틀려도 괜찮다고 했더니 좀 나아진 것 같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힘들어진다. 선교사인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오후반에 이어서 저녁반에도 물어봤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처음 온 파앵온이 말하다가 그만 울어버린다. 파앵온의 삶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다른 아이들도 눈물을 뉘는다. 한사람 한사람 예수님 앞에서 소원을 말하는데 참 가슴 아프다. 아이들이 소원을 말하면 내가 한사람 한사람 안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퍼엿은 집에 둔 핸드폰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속상해 하고 있다. 나도 그 마음을 안다. 새로 살 수도 없는 가정 형편이니 오죽하겠는가... 파앵온이 참석한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데 퍼엿은 웃지도 않는다. 온통 머리속엔 잃어버린 폰 뿐일거다.

성경읽기가 끝났는데 니엿이 어렵게 입을 연다. "선생님 어머니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내년 2월에 카사바를 수확하면 갚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나는 너무 힘들다~ 부모들은 왜 아이들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짜증도 나면서 마음도 아프다. 그냥 이 기간동안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

최사도 선교사(캄보디아 싸뭇르)



■ 목장소식(6-B목장)

저희는 매주일 교회에서 목장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는 돌아가며 집을 오픈해서 차도 마시고, 더욱 친근하게 주안에서 가족같은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임 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주중 삶에 가정과 직장, 관계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적게 모인 날은 소그룹으로 더욱 진솔하게 많이 나눌수 있어서 좋고, 다양한 나눔을 통해 서로로부터 배우고, 또 도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희 밸리 6-B 목장 목원 100퍼센트 출석을 기념하며,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 류명수 기자 |

■ 사역팀장 소감

몸은 지쳐 녹초가 되어도 샘솟는 섬김의 기쁨!

주방팀 / 김영희 권사

60여명의 선교팀 식사는 물론 재활원과 VBS에 참여하는 400여명의 현지 라티노들의 식사까지 책임진 주방팀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팀입니다.

선교팀의 일곱번의 식사를 한치도 오차 없이 시간까지 맞추어 가며 요리를 맛있게 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모든 재료와 조리기구까지도 LA에서부터 싣고 달려왔습니다.

더욱이 선교팀원들이 도착하면 식사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제일 먼저 출발하고, 현지에 일찍 도착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선발대이며 번개같은 팀입니다.

김영희 권사는 한번도 빠짐없이 멕시코 선교를 다녀오고 있는데, 소감을 묻자 “늘 기쁘고 감사하고, 현지에도 착하면 너무 기쁘고 힘이 막 솟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현지 영혼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김영희 권사, 김영기 장로, 김경배 장로, 이정희 권사, 이계순 권사, 김옥희 권사 모두 여섯분의 주방 팀원 모두는, 마음껏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한마음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미용팀 / 유제니 권사

사역 첫째날에는 재활센터에서 40여명의 재소자들의 머리를 깎아 주었고, 둘째날에는 선교센터에서 70여명의 남녀노소 현지인들의 머리를 손질해 주었습니다.

유제니 권사는 소감을 통해, 작은 재능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현지 루디선교사님이 미용의 자를 하나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고 편리했는지 모른다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지금은 wash 시설이 없어서 머리를

감겨주지 못하였는데, 다음에는 머리카락 감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화장실 한쪽편을 막아 놓고 임시 미용실을 차리고 미용실을 가기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손질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미용팀을 응원합니다.

세분의 미용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하며 “열심히 하는 만큼 보람은 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더 깊이 알게 돼'

마지막으로 갔던 2018년 단기선교 이후로 5년이 지난 그 곳은 여전히 열악하고 어두웠습니다. 같은 5년동안 많은 것이 바뀌고 발전된 이 곳 엘에이 지역과는 달리, 그 곳은 여전히 깨끗하고 따뜻한 물이 없었고, 동네 도로로는 울퉁불퉁 험하였으며, 가로등의 존재가 무안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5년 전 저는 그 곳을 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된 저는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깨끗한 물도 환한 빛도 닿지 않는 그 곳도 놓치지 않으시는 크신 하나님, 그 곳 한 사람 한 영혼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두고, 문제와 상황들에 낙심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선교 직전에 갑작스레 걸린 감기는 VBS 당일 말끔히 나았고, ICY 중고등부 수련회 후에 쉬었던 목소리는 선교지에 있는 현지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돌아왔습니다. 몸이 힘들어 예민했던 마음

에 시험이 들 때엔 개인 큐티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제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과정 속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셨으며, 흔들릴 때 붙잡아주셨고, 그런 부족한 저라도 사용해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비해 두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상황과 문제들은 여전히 있고, 믿음이 부족해 흔들리는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그저 인도하시는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멋지고 놀라우신 일을 보게될 것을 기대합니다.

| 이의연 성도 |

정성다한 침술, 통증 '짜악~' 멋지게 머리손질도



의료팀/ 정명안 안수집사

이번 멕시코 선교 중 의료사역을 하면서 모두 7명의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너무나 잘 해 주셔서 무사히 맡겨진 일을 해낼 수 있었고 또 한사람이라도 더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들 중에는 허리와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는 힘든 노동을 오랫동안 한 결과이고 이는 절대적으로 휴식과 치료를 함께 해야 빨리 회복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첫째날은 재활원을 방문하여 약 40여명의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고 둘째날은 선교센터에서 약 70여명의 환자들

을 치료해 주었는데, 바로 옆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잘 살피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도록 팀원들이 보좌를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분이라도 더 치료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환자들 중에는 중증 여성환자도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 주었고 많은 회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침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침술로, 뜸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뜸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환자들이 회복되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을 표하고 돌아갈 때에 보람도 느끼고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건축팀/ 문병훈 안수집사

현지 교회 옆 주방의 지붕이 내려앉아 이를 보강하는 공사를 건축팀이 진행했습니다.

문병훈, 문성훈 집사팀은 현지에서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첫째 날은 지붕 보강공사를, 그리고 둘째 날은 작은 storage 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붕 보강공사를 완벽히 마치자 현지 Rudy 선교사는 perfect 를 외치며, 강풍이 불고 지진이 와도 안전할 것이라고 만족해 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작은 창고를 만드는 공사

를 진행했는데 여러 자재를 넣어둘 창고로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문병훈 집사는 어려움이 없냐는 질문에, 현지 Helper 가 일을 너무 잘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함께 열심으로 섬긴 문성훈 집사에게 소감을 묻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그냥 웃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그냥 웃고 있는 두 집사님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 정리: 이광영 기자 |

'그들에게서 받은 위로와 사랑'

선교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거리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선교사는 선택받은 대단하신 분들의 고귀한 섬김의 자리로 여기던 제가 아들의 손에 붙들려 계획에 없던 선교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캠핑을 가도 잠은 꼭 실내에서 자는게 원칙일만큼 낯선 환경과 별레 등의 자연 상황에 익숙치 않은 저이기에, 선교지에 가는 것이 참 많이 같았되었습니다.

이번이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선교가 될 것을 확신하며 떠났던 내 마음에 채워진 건, 각자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더위도 피곤함도 잊은채 오직 섬김과 나눔의 은혜로 채워가시던 선교의 많은 선배님들의 햇살처럼 밝은 미소와 빼앗을 수 없는 보화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지치고 방황하고 아픈 영혼,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이 바로 내 눈앞에 있음을 마주하며 편한 일상에서는 가려져있던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 그 옆 꼬마가 세상 환하게 웃으며 내게 1페소 동전을 선물로 쥐어주었을 때... 나는 오히려 그들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마지막날 ICY, EM 학생들이 아이들을 업고 안고 즐겁게 놀아주는 모습 속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헤어지기 아쉬워 매달리는 아이들에게 내년엔 꼭 다시 올게 라며 약속하는 학생들의 그 다짐을 저도 말없이 가슴에 묻었습니다. 선교는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거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는거란 걸... 하나님이 제게 나누고 싶은 마음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 | 이현영 기자 |

■ 음악산책/ 연주 직전의 음 맞추기

오보에 ‘라(A4)’ 음 처럼 ‘영적 음정’ 조율을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가면, 본격적인 연주에 앞서 모든 악기가 일사불란하게 음을 맞추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대 뒤에서 완벽히 조율을 마치고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무대 위에 올라와 관객 앞에서 음정을 맞추고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길 때도 있다. 모든 악기는 연주



전에 조율을 끝내지만, 악기는 생각보다 민감해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짧은 순간에도 음정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 음악을 연주하기 직전에 무대에서 최종적으로 음정을 한 번 더 맞추는 과정은, 관객에게 최상의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많은 악기가 화음을 맞춰야 하는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들이 제각각의 소리를 내게 되면 음악은 망가진다. 기준이 되는 음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정하려는 여러 시도 끝에, 1939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440 Hz의 ‘라(A4)’ 음정을 표준음으로 설정했다. ‘라(A4)’ 음은 1초에 440번 진동하는데, 이 진동이 사람의 귀에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

오케스트라 연주 시작 전 악장의 지시에 따라 오보에 연주자가 ‘라(A4)’ 음을 연주하면, 모든 악기는 그 음정을 기준 삼아 각자 악기의 음정을 조절한다. ‘오보에’라는 악기가 기준음을 연주하는 이유는, 음정이 갑자기 변화할 가능성이 가장 작은 안정적인 악기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리굽쇠」라는 도구를 이용해 음정의

기준을 잡기도 했다. 알파벳 ‘U’ 모양의 이 도구는, 440 Hz라는 고유의 진동수로 제작되어 기계 장치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조율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제 막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어린이부터 화려한 경력을 가진 연주자까지, 연주에 앞서 기본이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악기의 조율이다. 조율하지 않으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된다.

신앙생활도 영적 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선택이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뜻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도 주님과 소통하며 내 삶을 세밀하게 조율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 황성남 기자 |

■ 뒷마당 과실나무

탐스런 열매 새 · 다람쥐들로부터 보호

봄 여름동안 정성껏 키운 단감나무와 대추나무에 아주 튼실한 열매들이 자라고 있고 이제 곧 9, 10월이면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을 수확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해마다 다람쥐, 까치로 인한 피해가 많아 어려움을 입게 되는데 이들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하려 한다.

* 다람쥐, 새들 퇴치

1. 새 그물망으로 나무 전체를 덮어씌우기

흙디포나 다른 너서리에서 'Bird Net' 그물을 구입 나무 전체를 그물로 싸맨다. 그물 구멍이 1cm 정도 크기로 가볍고 튼튼하여 다람쥐

나 까치로부터 과일을 보호한다.

폭 4m 길이 10m 그물이 \$ 13 정도이고 더 큰 싸이즈도 있다.

2. 망사 주머니(mesh bag)

큰 과일은 과일 보호용 망사로 된 주머니로 과일을 싸주고 부착된 끈으로 꼭지 부위를 꼭 묶고 가지에 고정시켜 주면 다람쥐, 까치로부터 보호 가능하다(Amazon에서 구입 가능).

* 약품으로 다람쥐 퇴치



▲ Squirrel Repellent - SEEKBIT
페퍼민트 오일로 만든 다람쥐가 싫어하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 골프공 모양의 고체약품을 망사 주머니에 넣어 과일나무와 다람쥐가 다니는 여러 곳에 걸어놓아 다람쥐가 도망가게 한다- 사람이나 애완동물에 무해

▲ Squirrel Stopper - SUAVEC
페퍼민트 오일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액체 성분의 약품으로 다람쥐가 다니는 길과 과일나무 큰 줄기에 스프레이 하여 다람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1달 정도 효과 지속 하므로 매월 뿌려주도록 한다.

| 나형철 기자 |